

전통마을 배치기법에 따른 북서울꿈의숲 설계

최신현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Design of North Seoul Dream Forest Based on Traditional Village Design Methods

Choi, Shin-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Seoul City planned "Dreamland" to be in harmony with the huge woods and park. It is located in the life zone in the northern region of Seoul as part of an extensive park development plan that the municipal government has promoted.

The space configuration technique of the aesthetics of "Empty" rather than "Full" gives the potentiality to cope with the uncertain changes in the city. Furthermore, the traditional element of the mountain landscape of Seoul was introduced and appropriated as the axis of the landscape for landscape configuration. In that configuration, the images of tree, sky, wind, water and soil are elegantly unfolded like a landscape painting. The purpose was to create a dominant landmark in the city landscape with the figures of Korean mountains and hills which were differentiated from architectural landmarks in the western cities by making nature, which was excluded from the urbanization plans up to now, an important subject for consideration.

As a result, this study made the space in a park including existing yards and streets in a city have the traditional hierarchy by applying the facility arrangement technique and elements extracted from Korean space types and traditional landscape concepts. Moreover, the North Seoul Dream Forest was designed by pursuing diversity and potentiality in the experience of space using a large open field in a city.

Key Words: Composition Technology, Mountain Scenery, Space Hierarchy, Yard

국문초록

서울시가 추진해온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강북지역의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하여 드림랜드 부지를 거대한 녹지의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공간 구성기법으로 채움보다는 비움의 미학을 통하여 불확실한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성을 부여하였고, 경관구성을 위하여 전통적인 서울의 산악경관 요소를 도입하고 차경하여 조망축을 형성하였는데, 유려하게 펼쳐진 한 폭의 산수화 같은 한 그루의 나무, 하늘과 바람, 그리고 물과 흙의 심상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화의 계획에 배제되어

Corresponding author: Shin-Hyun Cho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gbuk-do 712-749, Korea, Tel.: +82-2-553-0808, E-mail: ctopos@hanmail.net

왔던 자연을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서구도시의 건축적 랜드마크와는 차별화된 우리의 산과 구릉지 모습으로 도시경관의 지배적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통의 경관개념과 한국적 공간의 유형에서 추출한 시설배치 기법과 요소를 설계에 적용하여 기존의 도시가로와 마당과 같은 공원의 공간이 전통적 위계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도시의 확장된 오픈 필드(open field)를 통하여 공간경험의 다양성과 잠재성을 추구하여 북서울꿈의숲을 설계하였다.

주제어: 구성기법, 산악경관, 차경, 공간위계, 마당

I. 서론

강북 오동근린공원 드림랜드는 강북지역 유일한 놀이공원으로 1987년 4월에 개원되어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곳이나, 시설 노후, 방치 등으로 슬럼화되어 지역거점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지역의 대다수 시민들은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강북지역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대형공원으로 재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거 밀집 지역이며, 주변에 장위·길음·미아뉴타운사업 추진으로 공원 이용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여가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월드컵공원, 서울숲 공원 등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으로 서울 지역 전체의 공원인프라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모두 남산 아래쪽에 집중돼 있어 강북지역의 생활권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새롭게 조성될 북서울꿈의숲은 강북 동부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반경 5km 내에 강북·성북·도봉·노원·동대문·중랑 등 총 6개의 자치구를 아우르고 있어 수혜 인구만 약 264만 7천 명에 이르며, 주변에 장위·길음·미아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공원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II. 기본방향

채움보다는 비움을 통해 공간의 잠재성을 확보함으로써 확실한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여백을 제공한다. 또한, 땅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장소의 기억과 재생을 위한 기존의 인공지형을 활용한 시설배치 및 비워진 땅의 의미를 확장하여 공간 및 시설배치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시설배치기법에 있어서 고유의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하며 절제된 형태와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인 한국적 공간의 유형에서 추출한 요소들 즉, 기존의 도시가로와 마당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새로이 해석하여 공원의 조직을 구성한다.

가로의 활용으로는 한국적 공간의 위계를 통한 공간경험의 다양화를 추구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마당은 주거 건축의 형식에서 다양한 옥외 생활 및 보건, 위생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것은 주로 한 주거단위 안에서 각 단위 건물과 실들 간을 연

결하는 옥외 동선 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옥외에서의 가사 작업공간이나 가족의 휴식 공간으로, 때로 잔치, 상례 등의 비일상적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정원이나 텃밭으로, 이웃 집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완충 공간 등으로 실로 다양하게 기능해 왔다. 마당은 땅에 있는 장소, 지면에 접한 외부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이때 단순한 장소적 개념뿐만이 아닌 활동과 생활을 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마당이라 함은 서양의 정원(garden), 뜰(courtyard)과는 다른 의미이며, 우리 고유의 성격을 가진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부석사에는 마당을 비워놓고 자연, 즉 소백산의 풍경을 무한히 끌어들이는 반면에 용안사의 석정원은 내부를 한정하며 자연을 마당에 표현한다.

위의 글에서처럼 우리의 마당은 일본의 석정, 서양의 가든 및 코트와는 달리 공간의 비움을 통해 작업의 공간, 행사의 공간 등으로 그 기능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비어 있으며 쓰임이 있는 공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북서울꿈의숲'의 오픈 필드(open field) 또한 마당공간의 확장된 공간영역을 의미하며, 비워진 중심공간의 기능 역시 변화하는 도시구조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 혹은 진화해 갈 것이다. 단순한 비움이 아닌 쓰임을 위한, 자생적 생성의 장을 위한 비움인 것이다.

1. 도시구조의 단절

주변 도시구조와의 단절로 인한 밀집된 주거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 속의 섬처럼 떠다니고 있다. 중요한 자원요소인 숲을 공원의 한 요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변 도시구조와 연결하였으며, 도시의 공원의 경계를 열고 확장하여 도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원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광역적 조건

2개의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중심의 공원 접근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유동적인 공원이용인구가 아닌 주변의 재개발구역들 장위, 길음, 미아 등의 정주민구를 고려한 공

원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광역녹지체계에 있어서는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패치의 기능을 가지며 인근의 소규모 녹지패치들과의 연계는 에코 터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연결을 제안하였으며, 우이천~중랑천~한강으로 이어지는 광역 수계상의 상류부 수계의 성격을 지닌다.

공원의 성격 또한 시설중심이 아닌 경관중심으로 계획하여 채움보다는 비움을 통해 사방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대표적인 산악경관을 차경하여 공원 경관의 핵심으로 계획한다.

3. 시각적 구조

전통적인 서울의 산악경관요소의 도입과 차경 그리고 조망축의 형성 산업사회의 계획 조건에서는 배제되어 오던 자연을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산이나 구릉지는 도시경관의 지배적 요소로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요소들을 내부 경관에 도입하기 위해 차경의 기법을 도입한다.

III. 계획의 전략

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체계는 외연에서 내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심원 형식의 체계로 장소중심의 사고를 통해 나타나는 대지의 조직방식을 통하여 도시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공간, 지형에 순응하는 동선의 흐름, 반위계적이며, 분산화된 공간체계를 반영한 한국적 공간구조체계를 수립한다. 규모와 위치에 따른 공간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공간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4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원 프로그램들을 중심공간이 아닌 주변의 공간들로 분산함으로써 공원의 중심공간을 시설이 아닌 경관 중심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공간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동선의 고저차에 위한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동선의 고저차에 따른 주제가 있는 보행의 계획 및 공간의 연결을 통해 평탄지에 위치한 하단부의 중심동선은 공원의 주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주 동선으로 설정하고 중간레벨인 언덕에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소규모 시설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동선과 동시에 운동공간으로 활용한다. 상부의 산책로는 전망과 함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계획한다.

공간체계 중 가장 작은 단위 규모로서 공원의 경계부에 위치하는 경계부는 전이 공간적 성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시공간적 친밀도가 높은 공원의 형태로 공간의 위치에 따라 포켓파크, 아이덴티티(identity) 플라자, 째지마당, 가로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으로 조성된다(그림 1 참조). 중간규모의 공간은 공원이 지녀야 할 근린적 프로그램을 분산 수용하며 중앙의 잔디광장에 시설 프로그램 설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자연에 순응하는 길 중심의 공간배치를 통한 웰빙, 스포츠 등의 활동형 공간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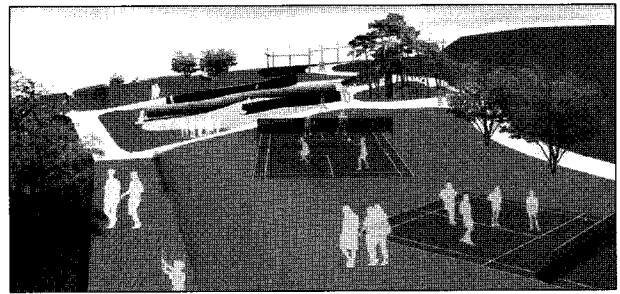


그림 1. 경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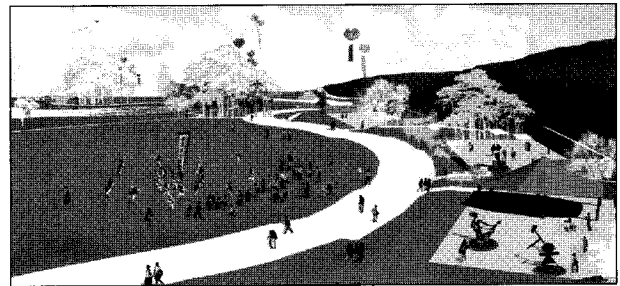


그림 2. 결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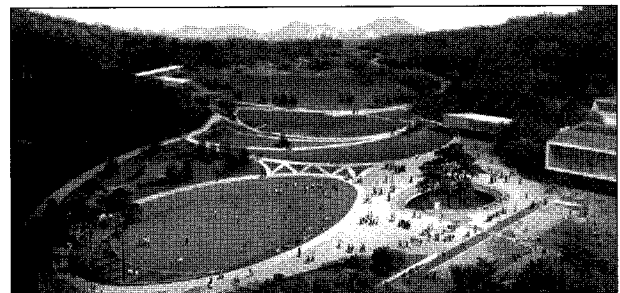


그림 3. 열린광장

그램을 수행한다. 큰 규모의 결절점은 시설지들이 공원의 주동선과 접하여 배치되며, 2km 길이의 순차적 이동경로를 통해 경관체험과 다양한 문화활동의 참여공간으로 자연공원 속에 살아있는 문화 및 역사 이벤트 참여공간으로 조성된다(그림 2 참조). 가장 넓고 열린 공간이며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물의 흐름을 생성시켜 형성된 공원의 중심 공간은 시설이 아닌 필드로 비워진 인공호수의 경관과 조화시킨 '북서울꿈의숲'의 새로운 아이콘을 형성하며 공원의 주체가 되는 생태적, 도시문화적, 경관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간이 된다(그림 3 참조).

IV. 기본구상

1. 토지이용 구상

숲의 규모 및 입지, 주변 맥락, 공원 내 기존 시설지 분포, 가용지 분포, 공간의 성격 등에 따라 4개의 큰 테마공간으로 구분

한다(그림 4 참조).

1) 오픈 필드

드립랜드가 위치하던 곳으로 주변 자연림에 둘러싸여 있으며, 평탄한 지형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 자연림과 어울릴 수 있는 대규모의 잔디광장과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제공하고, 계류를 조성하여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경관숲

기존의 자연수림이 양호하여 기존수림을 보존·정비하여 경관숲으로 활용한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로운 경관숲은 가족단위의 소통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포켓가든을 조성한다. 수목 각각의 개별적인 경관의 대상들이 군집을 통해 하나의 경관을 형성하고 일상의 틀을 넘어선 다채로운 경관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단풍나무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계절별에 따른 색채경관을 형성하고 공원의 경계부로서 주변 시민들의 이용계층에 따라 총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공간의 성격을 부여한다. 1구역은 각각의 테마가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자연두뇌 및 신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2구역은 신체의 유연성과 종합적인 운동단련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써 시설의 이용을 통해 신체균형 발달에 도움을 제공한다. 3구역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단풍숲 테마공간을 조성한다.

기존의 난립된 배드민턴장을 일부 철거하고 숲의 복원과 함께 고급화된 숲속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며, 노후화된 배드민턴장을 개선하여 참여가능한 시설로 재생하고 불법점유시설은 식재보강으로 숲의 구조를 복원한다.

3) 단풍숲

슬립화된 가옥들을 철거하고 생태적 가치가 희박한 아까시,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고 단풍나무류로 복원하여 새로운 경관을 연출함과 동시에 단풍림을 조성하여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휴식, 여가공간을 마련한다. 현사시나무, 아까시나무 등의 간벌 후 산책로변에 초화류 보식을 통한 이용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체험형 테마 체력단련시설과 서로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다.

2. 동선체계구상

1) 광역접근성

대상지는 강북 6개구를 둘러싸는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간의 간선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위한 3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경계부를 활용한 공원진입로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2) 부지 내 동선

오현로와 월계로를 연결하는 좌우측 두 개의 주요 동선체계 구축하고, 우측의 기존동선을 포장 개선후 보존활용한다. 주 동선은 단순한 원호형태로 하여 분절된 공간을 명료하게 연계시키고 경관구역과 공원시설구역을 구획하며, 부동선은 지형의 굴곡이 있는 자연수림지역은 곡선으로, 평탄한 경관수림지역은 직선형으로 구성하여 주 동선을 보완한다. 또한 오현로와 월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동선계획을 수립한다.

3) 기존동선 활용 및 주변과의 연결

경관숲 A·B지역의 양호한 숲 산책로를 보존하고 드립랜드 시설의 주 동선이었던 좌우측의 기반도로를 일부 활용하여 경제성을 제고한다. 인접한 주거지와 연계가 되도록 주요 골목과 통로를 연결한다.

3. 다양한 문화시설 도입

다양한 문화 예술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문화참여 활동 공간 및 조형시설을 적극 도입한다. 학생이나 일반인 및 예술단체가 사생대회나 야외전시회를 열 수 있는 숲 속 갤러리를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를 조형물화하여 역설적인 미적 체험공간을 제공한다.

4. 친환경공원 지향

매설관로를 통한 빗물배수를 지양하고 도랑형태의 침투형 개거수로로 우배수 체계를 수립한다. 공원 내에 세워질 모든 건물에 옥상녹화계획을 도입한다. 자연에너지 활용방안으로써 방문자 주차장 건물에 태양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및 태양열 조명을 도입한다. 숲속에 야생동물 서식처를 위한 생태연못, 덩굴 등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비오톱을 조성한다.

V. 기본계획

열린 가로공간의 구성과 함께 역동적인 수경연출을 통한 공원의 아이덴티티를 제공하는 칠폭지는 넓은 잔디밭을 이용한 가족피크닉 및 경사 잔디놀이터 조성하여 입구의 역할을 한다. 지나치게 과도한 산책로 조성을 지양하고 숲의 생태적 안정을 유도하며, 공원이용의 활용성을 고려한 비상 차로 동선을 변경

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기존 계곡수로를 활용한 저류지를 조성한다.

이야기정원과 월영지는 지방문화재인 창녕위궁제사의 의미와 전통의 정신을 살린 퓨전 한국정원으로 조성하여 수질 정화 수준을 도입한 전통적 한국경관 계류를 조성하고, 넓은 연못의 시원함과 폭포의 청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한국적 분위기의 공원으로 조성한다. 전통대(臺)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포대, 관수대 등의 조망 및 휴게공간을 조성한다(그림 5 참조).

너른 풀밭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청운담원과 창포원은 기존의 석축을 활용한 숲속 휴게쉼터로 아이콘 갤러리와 연계하여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14,000m²의 비워진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공원 전역에 걸쳐 다양한 테마의 수경관을 연출한다(그림 6 참조).

문화광장은 펠포밍 아트센터의 전정 공간으로 멀티극장의 활성화로 야외결혼식 등 이벤트의 공간이 되도록 공간활용을 다양화한다. 점핑폰드, 소규모 야외공연장 등 참여형 체험 시설을 도입하고, 야간이용의 다양성을 위한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한다(그림 7 참조).

단풍숲은 무허가 가옥 철거 후 기존지형을 복원하고 복자기, 청단풍 등을 식재하여 단풍나무 숲을 조성, 가을의 숲을 연



그림 4. 공간 구성



그림 5. 월영지 및 창녕위궁제사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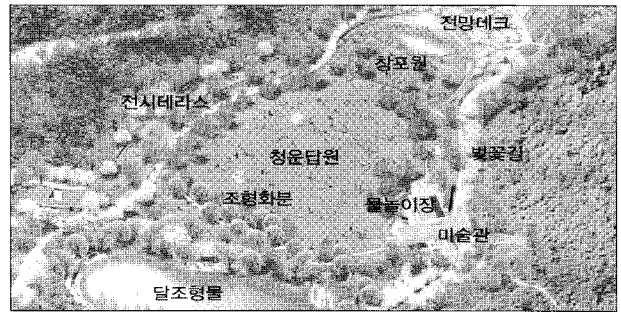


그림 6. 청운담원 및 창포원 공간계획



그림 7. 문화광장 공간계획



그림 8. 초화원 공간계획

출한다. 자생 초화정원, 허브정원을 조성하고 쉼터·화계 등을 설치하여 이용성을 제고하며, 주민 모임 및 휴게기능과 함께 조형물 체험의 공간인 조형화분마당을 제공한다. 예술작품 전시 등 옥외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각원을 조성한다(그림 8 참조).

기존의 눈썰매장으로 쓰여진 경사지에 위치한 테라스 형식의 인공지형은 이미 만들어진 땅의 형태를 살려 전망이 가능한 땅의 기억을 살린 문화재생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개발이 용이한 가용지 중심공간이 아닌 버려지고 소외된 계곡부 혹은 경사지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다양한 공간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공원의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기존대상지의 표면을 드림랜드의 시설 프로그램의 수용을 위해 공간화하였으며, 이러한 인공지형을 나무와 사람이 함께 자랄 수 있는 경관으로 계획하고, 도로에 의해 단절된 녹지공간 또한 에코터널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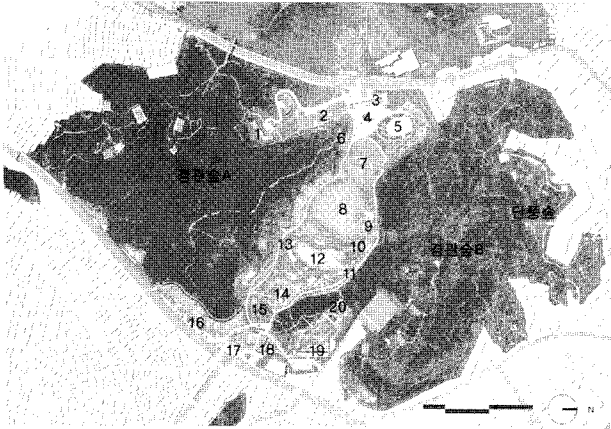


그림 9. 마스터플랜

- 범례: 1. 전망대, 2. 문화센터, 3. 거울못, 4. 점핑분수, 5. BOWL PLAZA, 6. 공연장, 7. 글래스파빌리온, 8. 청운담원, 9. 미술관, 10. 월광폭포, 11. 월광대, 12. 월영지, 13. 월영대, 14. 창녕위궁재사, 15. 이야기정원, 16. 칠폭포, 17. 칠폭지, 18. 방문자센터, 19. 브라운가든, 20. 초화원

으로 동·식물과 인간의 교류가 가능한 흐름과 소통이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그림 9 참조).

VI. 전통 배치기법 설계

1. 수경계획

1) 월영지 및 월광폭포

월영지에는 월광폭포와 포그분수를 설치하여 청량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형물 아래에 설치되는 포그분수는 미립자의 물을 분사시켜 마치 조형물이 운무에 휩싸인 듯한 수경을 연출한다. 야간에는 물과 조명이 어우러져 조형물을 한층 더 신비롭게 연출되도록 설계한다. 월영지 물을 이용하여 연출되는 월광폭포는 월영지의 자연스러운 물 순환을 유도하고 낙수시 유입되는 공기방울은 월영지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월영지에 담수된 물은 가장 깊은 곳에서 흡입하여 월영지 가장자리로 토출되는 물 순환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수되는 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2) 칠폭지

칠폭지 하부수조에서 흡입한 물을 칠폭지 상단으로 공급하고, 상단으로 공급된 물은 칠폭지를 흘러 하단수조에 도달하도록 한다. 칠폭지는 각각의 폭이 다르므로 폭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곳에는 별도의 보충수를 공급하여 칠폭지의 폭이 달라지더라도 낙수되는 물의 두께는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담수된 물의 사수 방지를 위하여 펌프 흡입 관로를 분산 배치하여 물 순환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칠폭지 저수탱크는 계류

를 흘러 칠폭지에 도달한 물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계실 유지용수 가압펌프에 의하여 계류A 시점부로 송출되도록 설계한다.

3) 창포원

창포원 수경시설은 계류에서 물을 유입하고 다시 계류 하단으로 방류하는 수 순환체계로 설계한다. 폰드에 설치되는 폼분수는 굵은 물줄기 적용으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폼분수 하단에는 LED수중조명을 사용하여 야간에는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분수연출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담수된 물의 사수방지를 위하여 수조 중간에서 흡입된 물은 정수시설을 통과한 후 수조의 가장자리로 토출되어 목표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샌드필터와 살균시설을 설치하여 항상 쾌적한 수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식재계획

장기간에 걸쳐 숲으로 형성될 수 있는 대교목 위주의 수종을 선정한다. 적극적인 토양개량으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식재기반을 조성한다. 각 테마공간별 이용특성에 따라 공원숲, 경관숲, 테마숲, 테마식물원으로 구분하여 지역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반영한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기후 및 토양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생태적 천이를 고려한 수종 선정 및 배식계획을 수립하며 계절감이 풍부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다(그림 10 참조). 꽃과 단풍, 열매 등 계절적 변화를 부각시키는 수종 선정 및 식재 기법을 적용하고 수목원과 같이 꽃과 수목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목과 지피초화류를 도입한다.

오픈필드의 경계부분에 빛나무를 열식하여 오픈필드의 배경이 되는 경관을 형성하고, 대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등 각각의 질서있는 단순함을 구성하여 푸르름을 제공하고, 매화, 수양벚나무 등 색채가 강한 수종을 곳곳에 배치하여 경관을 연출한다. 숲 속에서 사람활동이 가능한 지하고가 높고 장대한 수목 위주의 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수공간 주변에는 수공간 속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낙우송을 식재하여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수면에 식생하는 초화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여 수질 정화 및 수변경관을 연출한다. 시민참여 기념식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직접 수목들을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이 만들어간다는 공원의 의미를 부여한다.

경관숲의 식재계획은 신갈나무림과 상수리나무림이 우점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형이 장대하고 생육이 왕성하여 우수한 경관이 연출된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다양한 수종을 수하 식재하며, 숲 내부의 입간지역은 공지에만 인공식재를 계획한다. 아까시나무 소수개체 또는 소규모 생육지역은 벌채 후 인공 식재한



그림 10. 계절별 식재계획

다. 산벚나무, 피나무, 때죽나무, 고로쇠, 단풍나무, 팔배나무 등 교목과 개취땅, 말밭도리, 산수국, 초피나무, 좁쌀살나무 등 관목을 도입한다. 산책로를 따라 보행하면서 10m 이내의 가시거리가 확보된다.

단풍숲은 다층구조의 생태 숲 조성 및 생물종 다양성을 고려한 생태 교육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 체험의 공간을 제공한다. 무허가 가옥을 철거하고 생태적 가치가 희박한 아까시,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고, 단풍나무류로 복원하며, 테마를 가진 체력 단련장 조성을 통해 공원이용자들의 건강 증진 및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Ⅶ. 결론

강북 대형공원 조성 사업지구는 전체 면적이 약 892,769m²에 달하는 비교적 넓은 도심 속의 산림녹지라 할 수 있으나, 시가화지역에 의해 고립되고 드림랜드 시설 부지와 공원로에 의해 세 지역으로 분리되는 입지환경을 지니고 있어 파편화된 생물서식처로서의 제한적인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발고도가 낮은 저산지성이나 급경사지역으로서 토양층의 발달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빈약한 수환경과 함께 저지대 평탄지나 수

계로 이어지는 생태적 추이대가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식환경의 양적, 질적 악화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집약적인 인공 중심의 토지이용과 드림랜드 놀이시설의 영향으로 생물서식환경에 대한 영향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산림생태계의 간섭과 교란 등으로 건전한 생태계의 형성 및 발달과정이 지연되고,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부양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분석되었다.

산은 풍류와 정취를 즐기는 정신적 안식처이자 사색의 화두를 제공하는 한국 고유의 전통이다(김도경 등, 2008). 이러한 산수를 고려한 마을공간의 구성으로 주거지 내부로 유입된 물질은 상징성과 실용성을 갖춘 수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길을 통한 공간구성형식으로 안길을 따라 마을의 공동시설을 배치하고, 이 공동시설은 마을의 진입 시 장소성을 나타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강북공원의 오픈필드 또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질을 통해 공간의 프로그램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생태적인 수로의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내부가로에 배치된 시설들은 원의 중추적인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옛 선인들의 공간구축 방식을 현대에 재해석함으로써 한국적인 또 다른 표현이자 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찾아가고자 한다.

단절된 도시구조와 공원의 영역을 흐리게 하여 서로 관계 맺게 하고 대상지 전체를 관통하는 물이라는 흐르는 요소를 통해 프로그램의 확산 혹은 생성을 유발하게 되고 공원문화를 꽃피우게 되는 촉매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물은 불확정적 프로그램의 수용을 위해 크게 비워진 대상지의 중앙부를 관통하며, 이 공원의 주요한 경관요소로 활용된다. 계획된 각각의 시설공간들은 단 기간에 모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 혹은 주변상황의 요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개발될 것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공원조성의 틀을 수립하고, 그 틀을 지속적으로 성장, 진화한다.

인용문헌

1. 구영일(2009) 전통문화환경에 새겨진 의미와 가치: 전통경관과 조경, 문화, 환경을 둘러싼 열네가지 이야기. 파주: 조경.
2. 김도경, 최원만, 홍형순(2008) 강북 대형공원 기본계획. 한국조경학회지 36(4): 1-14.
3. 홍광표, 이상윤, 정운익(2001) 한국의 전통수경관. 서울: 태림문화사.
4. Levy, Leah(1998) Kathryn Gustafson: Sculpting the Land. Cambridge: Spacemaker.

원 고 접 수 일: 2009년 11월 7일
 심 사 일: 2009년 11월 19일
 계 재 확 정 일: 2010년 2월 2일
 3인익명 심사필